



2019년 8월 4일(제940호) 연중 제18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바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모으고 시간을 쓰는 사람은 하느님께나 이웃에게나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많이 차지하고 많이 누리고 많이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함께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많이 차지하고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지니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 언제나 풍요롭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지 나눌 수 있을 만큼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니다. 그러나 샘물은 퍼내지 않으면 곧 썩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새로운 풍요로움으로 채워 주시지만,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은 썩는 샘물처럼 그렇게 죽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쳐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만큼 바쳐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라는, 관계를 위한 제물들입니다.

부정한 제물이라도 친구를 사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유일한 가치인 관계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우리 신앙인인 장병들은 항상 부유한 사람이어야겠습니다.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남

이표인(요셉) 신부
철성(7시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코헬 1,2; 2,21-23
- 회 답 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제 2 독 시** 콜로 3,1-5.9-11
- 복음 본 문 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복 음** 루카 12,13-21
- 영 성 제 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윤운혜 루치아



성인명: 윤운혜 루치아 (尹雲惠 Lucy)

신분: 양반, 부인, 순교자

활동연도: ?-1801년

윤운혜(尹雲惠) 루치아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양근의 한감개(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에서 살았으며, 일찍이 어머니 이씨(李氏)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1801년에 순교한 정광수 바르나바는 그의 남편이고, 윤점혜 아가타는 그의 언니이다.

윤 루치아는 나이가 차자 여주에 사는 정 바르나바와 혼인하였는데, 비신자인 시부모의 반대로 혼인 문서는 주고받을 수 없었다. 또 시부모가 조상 제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때마다 그녀는, '교회에서 금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윤 루치아는 남편과 함께 부모의 곁을 떠나 한양의 벽동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가 1799년이었다. 한양으로 이주한 뒤부터 윤 루치아 부부는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면서 교회 일을 돕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기 집 마당 한편에 따로 집회소를 짓고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모셔다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그 집회소를 교우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때 그곳에 자주 모이던 교우들은 홍필주 필립보, 김계완 시몬, 홍익만 안토니오, 강완숙 골롬바, 정복혜 칸디다 등이었다.

윤 루치아 부부는 전교에도 힘써, 누구보다 많은 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상분을 그리거나 나무로 목주를 제작하였고, 교회 서적들을 베껴서 교우들에게 팔거나 나누어 주었다. 그러던 가운데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나 언니 윤점혜 아가타가 체포되자, 윤 루치아는 자기 부부도 머지않아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녀는 남편 정 바르나바를 피신시킨 다음, 교회 서적과 성물들을 다른 교우의 집으로 옮겨다 숨겨 놓았다. 그리고 혼자 남아 집을 지키다가 그해 2월에 체포되었다.

이후 윤 루치아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배교를 강요당하며 신문을 받았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밝혀진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았으며, 배교도 거부하였다. 그러자 박해자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윤 루치아는 형장으로 끌려나가 5월 14일(음력 4월 2일)에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복 음 묵 상

- 베냐민(베드로) 신부 / 예수회

숨 쉬는 이 시간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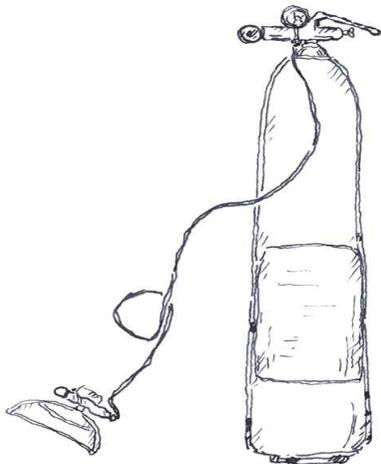
지금 당장은
숨 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가공은
나의 마지막 때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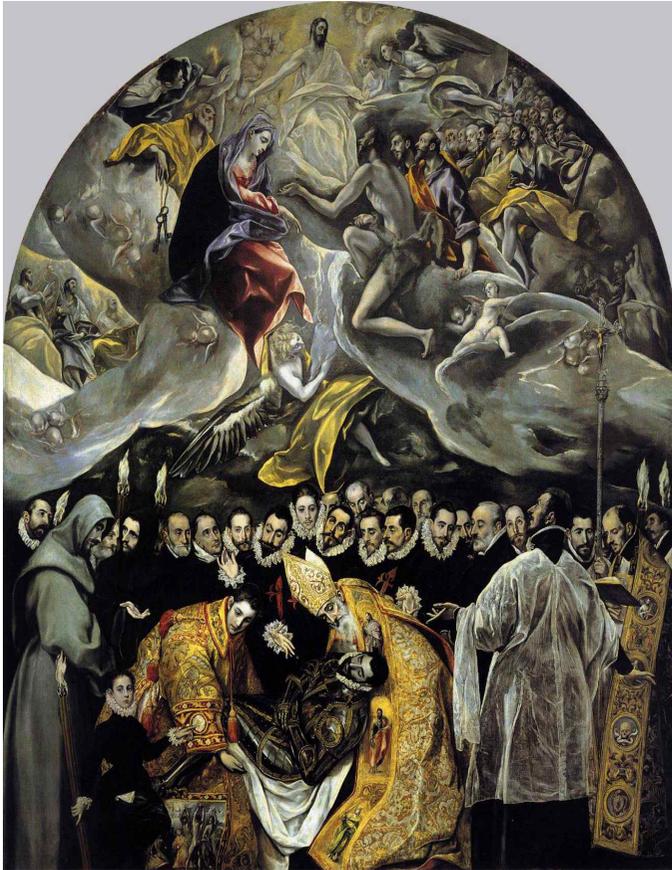
살아 숨 쉬는 것에
감사하자.

지금. 이 순간부터...



상화이야기

오르가즈 백작의 매장



엘 그레코, 1586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480×360cm
톨레도 토마스 성인 성당, 스페인

그림 왼쪽 앞쪽의 작은 소년과 스테파노 성인 뒤에 수도복을 입은 젊은 청년은 이 장면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루카 12,20)

이 그림은 14세기부터 전승되고, 스페인에서 인기가 많았던 전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오르가즈 백작은 살아생전에 빈곤한 이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는데, 그의 장례식에 스테파노 성인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하늘에서 내려와 직접 성인들의 손으로 그를 묻었다는 전설이 있었다. 엘 그레코는 전설의 내용과 동시대 장례의식을 그대로 재현하여 표현했으며, 지상에서 장례식을 거행하는 하단 부분과 천상에서 백작의 영혼을 맞이하는 상단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은 오르가즈 백작의 영혼(창백하고 공기처럼 표현된 작은 아이의 모습이다)을 들고 있는 천사로, 천상에서 수많은 성인들과 천사들 그리고 성모님에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이 오르가즈 백작을 맞이하고 계신다.

지상에서는 의식 때 입을 군대식 철갑옷을 입은 백작을 두 성인이 매장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몇몇 인물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주교복을 입었다) 바로 뒤에서 하늘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이는 엘 그레코 자신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다.



김은혜(벨리사벳)

엘 그레코 자화상 부분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8주일: 동상대 이상민 신부

◆ 교구장 동정

- Knights of Columbus 연례모임
때·곳: 7월 29일(월)~8월 10일(토), 미국

◆ 군중주보회 쉼레미시

때·곳: 8월 5일(월) 15:00,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